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2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무엘하 · 디도서 · 빌레몬서 · 히브리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 Contents

8 매일성경묵상 사무엘하 12장 ~ 사무엘하 15장

14 1과 빈 무덤

22 매일성경묵상 사무엘하 16장 ~ 사무엘하 21장

30 2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다

38 매일성경묵상 사무엘하 22장 ~ 사무엘하 24장

디도서 1장 ~ 디도서 3장

46 3과 새 일들

54 매일성경묵상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1장 ~ 히브리서 5장

62 4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70 매일성경묵상 히브리서 6장 ~ 히브리서 8장

『중언의 만나』는

가정에배 · 구역에배 · 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언교회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2 February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사무엘하 12장
5	6 사무엘하 16장	7 사무엘하 17장	8 사무엘하 18장
12	13 사무엘하 22장	14 사무엘하 23장	15 사무엘하 24장
19	20 빌레몬서 1장	21 히브리서 1장	22 히브리서 2장
26	27 히브리서 6장	28 히브리서 7장	29 히브리서 8장

March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 사무엘하 13장

3 사무엘하 14장

4 사무엘하 15장

9 사무엘하 19장

10 사무엘하 20장

11 사무엘하 21장

16 디도서 1장

17 디도서 2장

18 디도서 3장

23 히브리서 3장

24 히브리서 4장

25 히브리서 5장

교회 주요일정

2월 22일

재의 수요일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시작
(~ 3월 31일)

2월 24일

제1차 청지기훈련

2월 26일

제1차 학습세례식

나의 주요일정

- 1 2012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4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2 사순절기(2.22~3.31)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
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3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
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4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
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5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6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
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7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
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8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9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10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그리스
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 11 2012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
씀의 잔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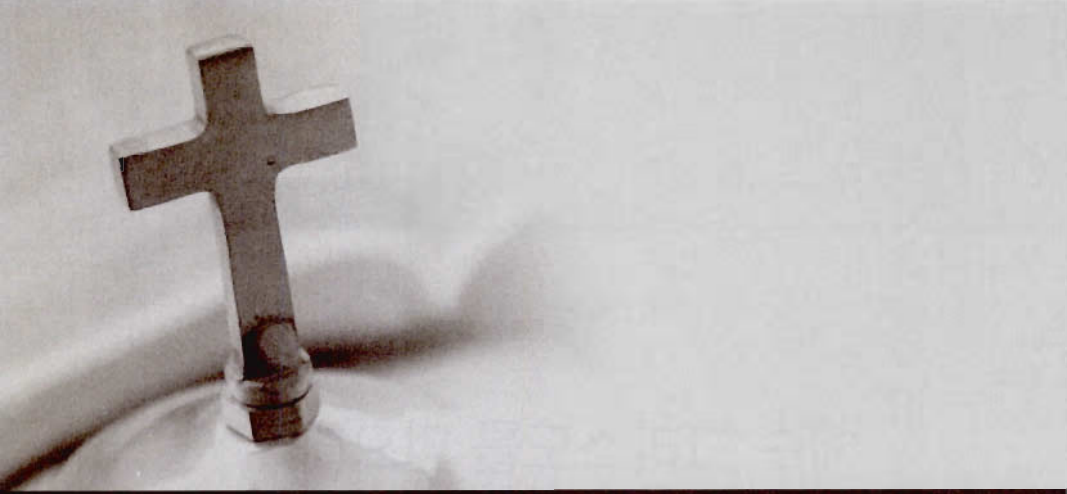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2012년 2월 2일 목요일 새벽 7시 12분 김성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어찌하여 내가

사무엘하 12장
찬송가 286장

목/상/노/트

밋세바와 간음을 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1~4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5~12절). 다윗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마땅히 죽을 죄였지만 다윗 대신 다윗의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3~14절).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심히 통곡하지만 아이는 죽고,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해 더 절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후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15~23절). 하나님은 참 회개하며 돌아온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24~25절).

다윗은 밋세바를 범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남편의 심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사고방식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악함입니다. 간음이란 이런 악함에 의해 튀어나온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이냐 살인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함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결국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악함으로 살았노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의 행위에서 죄를 찾기보다 나의 악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보는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물들의 성음(27절)**: 임문의 수도 랍바가 물 공급을 받는 상수도를 가리키며 그곳은 요새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을 탈취하였으므로 랍바성의 정령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사람 우리아를 치되 임문 지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대삼하(12:9)
Why did you despise the word of the LORD by doing what is evil in his eyes? You struck down Uriah the Hittite with the sword and took his wife to be your own. You killed him with the sword of the Ammonites. (2 Sam. 12:9)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나의 행위에서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이 아닌, 나의 본질적인 악함을 회개하게 하소서. ② 2012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4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암논은 이복누이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1~2절). 요나답의 잘못된 충고로 인해 암논은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3~14절). 그러나 다말을 범한 암논의 마음은 다말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고, 그는 다말을 강제로 쫓아 버렸습니다(15~19절). 압살롬은 다말의 문제로 암논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는 암논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20~22절). 2년이 지난지만, 압살롬은 완벽한 복수를 위하여 때와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양털 깎는 날, 압살롬은 마침내 암논을 살해합니다(23~29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뒤늦게 안 다윗은 대성통곡합니다(30~36절).

끝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만 암논은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다말만 차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좋다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 된 욕망입니다. 이처럼 욕망은 아무리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에게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악과에 마음을 빼앗긴 하와에게 그러한 말씀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만 된다면 죽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간교함은 인간을 이런 마음으로 끌어잡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악함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나아 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우리의 악함을 모두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삼하 13:12)

"Don't, my brother!" she said to him. "Don't force me. Such a thing should not be done in Israel! Don't do this wicked thing." (2 Sam. 13:12)

기도제목

① 세상 욕망에 쉽게 끌려 다니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모두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케 하소서. ② 사순절기(2.22~3.31)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무엘하 13장
찬송가 368장

목/창/노/트

· 나날이(4절) : 히브리어 본문에는 '아침에'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다. 즉 '아침마다'라는 뜻으로 새 아침이 되면 될수록 더욱 여위어 감을 가리킨다.

3

입맞춤과 반역

사무엘하 14장
찬송가 314장

목/상/노/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뒤 다윗은 그를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왕과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재 역할을 합니다(1~3절). 다윗은 3년 만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지만 진정한 화해를 거부하며 만나지 않습니다(21~24절).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더 이상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해를 청하고,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의 입맞춤을 합니다(28~33절).

다윗과 입을 맞추면서도 압살롬은 마음속에 반역을 품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생각했다면 다윗의 입맞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보는 신자라면 반역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는 신자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 마음은 예수님께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은총이 아니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멸망의 존재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참으로 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얻게 할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신자가 세상의 조건, 외모를 내세워 약지를 무시하고 강자로서 군림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주신 주님께 반역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 내 발 근쳐(30절) : 히브리어의 뜻은 '내 손 가까이', 즉 쉽게 좌우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말이다. 압살롬의 임의대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을 가리킨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삼하 14:33)

So Joab went to the king and told him this. Then the king summoned Absalom, and he came in and bowed down with his face to the ground before the king. And the king kissed Absalom. (2 Sam. 14:33)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은총이 아니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멸망의 존재임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마음을 훔치니라

다윗 왕과 화해한 압살롬은 야심을 키워갑니다(1절). 압살롬은 우선 외적인 과시를 통해 백성들에게 차기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재판을 하러온 사람들과 다윗 왕을 이간질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2~6절). 압살롬의 반역 음모를 전혀 몰랐던 200명이나 되는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까지 동원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7~12절). 갑작스런 압살롬의 반란 소식에 다윗은 초라하게 도망합니다(13~16절). 다윗에게는 더 이상 왕의 면모도 위엄도 없었습니다(13~16절). 하지만 가드 사람 잇대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힘든 상황에 처한 다윗을 호위합니다(17~23절). 사독과 레위인들은 다윗을 위하여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에게 각각 필요한 임무를 맡깁니다(24~37절).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씀합니다(6절). 훔쳤다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이 살아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피로써 산 민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전 7:23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삼하 15:6)

Absalom behaved in this way toward all the Israelites who came to the king asking for justice, and so he stole the hearts of the men of Israel. (2 Sam. 15:6)

사무엘하 15장

찬송가 488장

목/상/노/트

• 병거와 말들(1절) :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기르지 않고 노새를 이용했다. 성경 기록상,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사용한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이다.

기도제목

①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게 하시고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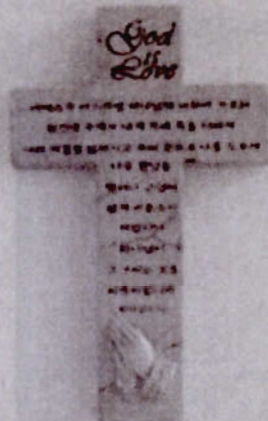
기도노트



맹신

광신

참 믿음



성경주석가 Wiersbe는 신약성경을 강해하면서 믿음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맹신(dead faith), 둘째는 광신(demonic faith), 그리고 셋째는 참 믿음(dynamic faith)이다.

맹신은 '자기'에 갇힌 죽은 신앙이다. 믿기는 믿되 자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믿음은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은 자신에게 쏠려 있다.

광신은 자기를 넘어 믿음의 대상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맹신과 다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애(自己愛)의 확장일 뿐이다.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의 구원을 추구하는 악마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참 믿음**이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맹신과 광신이 득세하는 시대에 참 믿음을 갖기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다. 자기를 부인하면 되기 때문이다(마 16:24). '나'를 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

빈 무덤

마태복음 28:1~10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다

창세기 5:24

새 일들

요한복음 1:43~51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예레미야 31:1~4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5 주일

6 월요일

☐ 사무엘하 16장

7 화요일

☐ 사무엘하 17장

8 수요일

☐ 사무엘하 18장

9 목요일

☐ 사무엘하 19장

10 금요일

☐ 사무엘하 20장

11 토요일

☐ 사무엘하 21장

1

빈 무덤

The Empty Tomb

| 초점 |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 찬송 |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 본문 | 마태복음 28:1~10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권위 있게 말하던 그 사람을 제거했다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을 꾸짖던 그 사람을 없앴다고 생각했으며, 정치인들은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람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그들이 범죄자 하나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던 소위 승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요 2:19 _____

롬 1:4 _____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얻으실 그 확실한 승리에 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전 시대에 걸쳐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빈 무덤과 관련하여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주의 천사가 빈 무덤 곁의 굴러간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 28:1~3 /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_____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여인들은 신실했지만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천사와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올 것입니다.

살전 4:16~18 _____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고, 누군가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잊혀지게 됐다고 해도 예수님은 각 신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시며 재림하실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빈 무덤 곁에 앉았던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인들과 여인들의 근심

빈 무덤 곁의 군인들과 여인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마 28:4~5 / 지키던 자들이 _____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3일간 무덤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냐하면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마 27:66). 그러나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렸고, 군인들은 빈 무덤을 본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공황상태에 빠져 기절하였습니다.

※ 무덤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군인들이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관해 말하지만
그들 내면의 진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교회의 재정을 부적절한 방법으
로 사용합니다.

마 28:11~13 _____

여인들을 안심시키다

주의 천사는 두려워하던 여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 28:6~7 _____

천사는 군인들에게는 그 어떤 확신의 말도 주지 않았으며,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믿음의 건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일렀고, 또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없으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고전 15:3~4 _____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들에게 서둘러 믿음으로 움직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 계시며 그녀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고 계심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보다 먼저 가십니다.

요 10:4 _____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영적인 실재로 이끎니다. 주님의 빈 무덤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오고 계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시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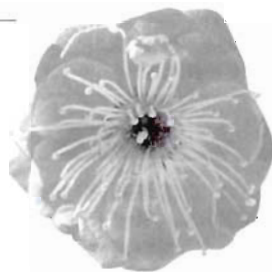
※ 예수님의 빈 무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벧전 1:3~4

| 믿음의 기도 |

- ① 빈 무덤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 ② 모든 근심과 걱정,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소서.
- ③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게 하소서.





시므이의 저주

사무엘하 16장
찬송가 303장

목/상/노/트

다윗은 자기 주인의 재물을 탐낸 므비보셋의 종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므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1~4절). 바후람에 도착한 다윗 일행을 본 시므이는 그들을 저주하는데, 그는 사울의 족속으로 다윗 때문에 자기 가문이 망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5~8절).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10~12절). 후사는 다윗의 명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어 압살롬을 따를 것을 명세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사의 치켜세우는 말에 속아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15~19절).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조언함으로써 더 큰 죄악은 물론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결국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맙니다(20~23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압살롬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집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을 사울의 편을 들고, 사울을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저마다 시므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니 모두가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도, 다윗도, 나도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서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과 세상을 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삼하 16:8)

The LORD has repaid you for all the blood you shed in the household of Saul, in whose place you have reigned. The LORD has handed the kingdom over to your son Absalom. You have come to ruin because you are a man of blood!(2 Sam. 16:8)

• 마루택(1절) : 감람 산 꼭대기를 가리키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있었다(삼하 15:32).

기도제목

① 성경을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7

아히도벨은 다윗 군대를 기습하여 다윗의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는 계락을 폈습니다(1~4절). 반면 후새는 아히도벨의 계락을 들은 후 전혀 다른 계락을 내놓습니다. 기습이 아닌, 전면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락을 물리치고 후새의 계락을 따르게 하셨고(5~14절), 후새는 다윗에게 압살롬의 모든 계락을 알렸습니다(15~20절).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락이 시행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렸습니다(23절). 전운이 감도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의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27~29절).

다윗의 위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여전히 있었고,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자는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리함이 유리함으로 바뀔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락 사람 후새의 계락은 아히도벨의 계락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락을 물리치고 명령하셨음이라(삼하 17:14)

Absalom and all the men of Israel said, "The advice of Hushai the Arkite is better than that of Ahithophel." For the LORD had determined to frustrate the good advice of Ahithophel in order to bring disaster on Absalom. (2 Sam. 17:14)

사무엘하 17장

찬송가 545장

목/창/노/트

• **소배(27절)** : 하늘의 형제인 듯 하매삼하 10:2~4, 다윗이 그의 통치 시 격퇴한 적이 있다.

기도제목

①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소서. ② 2012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관심

사무엘하 18장
찬송가 424장

목/상/노/트

다윗은 전열을 정비하고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립니다(1~4절).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5절). 그러나 압살롬은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6~9절). 요압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10~15절).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역은 끝나고 승자와 패자는 가려졌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압살롬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반기를 든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16~33절).

신자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가는 사람이자, 자신의 열심을 통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다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군사와 칼 조직력으로 승리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다윗이 군사도 없고 칼도 없이 무기력한 상태라 하더라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누가 그 뜻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패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많은 군사와 칼을 가지고 나선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신자란 이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분도, 패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 왕의 골짜기(18절) : 창 44장의 사건에 유래된 지명이며, 해루살렘 가까이에 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삼하 18:8)

The battle spread out over the whole countryside, and the forest claimed more lives that day than the sword.(2 Sam. 18:8)

기도제목

① 우리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다윗은 오히려 슬피 통곡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까지 들리자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었습니다(1~3절). 요압은 왕이 슬퍼하는 것이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권면합니다(4~8절).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를 저주하고 모욕했던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자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용서해 주었고(9~23절), 자신을 따라오지 않은 므비보셋에게는 그의 토지의 반을 시바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했습니다(24~30절). 다윗이 어려울 때에 그를 도와주었던 바르실래는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겸손하게 거절합니다(31~43절).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자 요압은 자신들의 수고와 승리를 높여주고 기뻐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나타냅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의 심정보다는 자신들의 승리가 높여지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수고가 높여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역시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으로 역사 속에 묻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실에서 날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기쁨을 찾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공로와 수고는 가당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녀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삼하 19:5)

Then Joab went into the house to the king and said, "Today you have humiliated all your men, who have just saved your life and the lives of your sons and daughters and the lives of your wives and concubines. (2 Sam. 19:5)

• **얼굴을 가리고(4절)** : 눈물을 감추려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치를 당한 자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장적 행위로도 볼 수 있다

기도제목

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여인의 지혜

사무엘하 20장
찬송가 455장

목/상/노/트

세바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예루살렘 환궁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내전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세바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요압 대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이용합니다. 요압은 아마사가 다윗의 신임을 받자 질투하여 그를 죽입니다(1~13절). 아마사를 죽인 요압이 다시 세바를 죽이려고 아벨 성읍을 무너뜨리려하자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전쟁 없이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내어줍니다(14~22절). 이로써 세바의 난은 평정되고 다윗은 다시 요압을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고 조직을 개편합니다(23~26절).

요압은 반란자인 세바를 잡기 위해 여호와와 기업인 아벨 성을 쳐서 허물어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요압의 목적은 아벨 성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바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바를 잡기 위해 아벨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 여호와와 기업을 삼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는 요압이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벨 성이 여호와와 기업이라는 것보다는 세바를 잡아 죽임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되찾고 군장이라는 위치를 다시 확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요압과 같은 어리석음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연약한 여인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할 일에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일 사람(26절) : 므낫세 지파의 아일을 언급하는 것 인(제민 32:41), 아니면 길르앗 태생의 사사 아일을 가리키는 것인(삿 10:3,5) 분명하지 않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삼하 20:16)
a wise woman called from the city, "Listen! Listen! Tell Joab to come here so I can speak to him." (2 Sam. 20:16)

기도제목

① 내 삶, 내 일에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닌, 매 순간 주님께 초점을 두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언약 백성

11

삼 년 째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과거 사울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과 맺은 화친조약(수 9:3~27)을 어기고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일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1~2절).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사울 가문에 속한 일곱 사람을 죽여 목을 매다는 것으로 갚아 주었습니다(3~9절). 사울 가문에 대한 형 집행으로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가 시신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일곱 구의 시신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길르앗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 셸라로 이장하여 모든 시신들이 가족묘에 묻히게 배려했습니다(10~14절).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다윗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웠으며, 다윗의 용사들은 용감하게 적들을 물리쳤습니다(15~22절).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먼 지방에서 온 것으로 위장하여 여호수아와 화친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언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와 기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기브온이 언약으로 인해 가나안에 머물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언약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임에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맺은 피의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삼하 21:1)

During the reign of David, there was a famine for three successive years; so David sought the face of the LORD. The LORD said, "It is on account of Saul and his blood-stained house; it is because he put the Gibeonites to death." (2 Sam. 21:1)

사무엘하 21장

찬송가 546장

목/상/노/트

· 후사 사렘(18절) : 유다 산지에 있는 장소로 베들레헴 남쪽에 위치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기도제목

① 언약 백성으로서 은혜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오직 은혜입니다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영적 상황을 바라보고 팀장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쓰레기통 같이 더럽고 내 생각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기에 보물함이라는 말씀. 그 보물을 잘 간직하며 빛내도록 더러운 쓰레기를 매일 비워내는 자기 부인의 삶이 얼마나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느끼며 대충 신앙 생활했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리의 중요성과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느낀 귀한 선교였습니다.

“주님! 성령충만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나는 공안들과도 적절한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공안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신은 공안입니까?”라고 웃으며 질문할 수 있는 여유도, 담대함도, 적절한 대화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공안들은 웃으며 저희를 보내 놓고 난 뒤에야 예수님을 증거한 사실을 알고 경찰 본청에 신고했고, 또한 운전기사 친구인 한 공

기사단

월드 | 이념 | 내성

안을 통해 호텔 감금 예정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른 아침 떠나오는 그 자리에 바로 공안 차가 들어오고 저희는 이미 피한, 한 편의 영화 처럼 주님은 저희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노이의 공원과 호수에서의 사역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젊은이와 대학생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첫날부터 기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였고, 기사가 "공안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 그렇습니다"하며 사역할 때 통역까지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기사의 집을 방문하여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공안을 만날 때 기사는 두려워 떨었지만 다음 번에도 이런 사역이 있으면 주님의 증거의 삶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김석영(권사, 7교구)

빈 두덤

마태복음 28:1~10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다

창세기 5:24

새 일을

요한복음 1:43~51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예레미야 31:1~4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2 주일

13 월요일

☐ 사무엘하 22장

14 화요일

☐ 사무엘하 23장

15 수요일

☐ 사무엘하 24장

16 목요일

☐ 디도서 1장

17 금요일

☐ 디도서 2장

18 토요일

☐ 디도서 3장

2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다

God Took Him

| 초점 |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 찬송 |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 본문 | 창세기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에서 각 족장마다 그들의 이름과 첫 아들이 태어날 때 그들의 나이, 남은 수명, 그리고 죽을 때의 나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창세기 5장의 어두운 “죽었더라”라는 말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창 5:24 _____

히 11:5 _____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성경 계보 속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는 에녹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젊고, 강하고, 건강할 때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는 틀림없이 이 놀라운 젊은이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데려가심을 당했을 때 에녹의 경험을 보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에녹의 평판은 우수했다

하늘로 옮겨지기 전 에녹의 평판은 우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유 1:14~15

에녹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를 대적하여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의인이었습니다.

롬 1:17

※ 에녹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매우 어렵고 걱정스런 시대에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창 6:5~7 _____

롬 11:33~36 _____

에녹이 살던 당시는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으로 하여금 끔찍한 슬픔을 면케 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를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음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신 이유를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신비로운 뜻을 그분께 맡겨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듯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의탁해야 합니다.

막 14:36 _____

요 6:40 _____

에녹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진 후 주님과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그곳은 최고의 장소일 것입니다. 에녹의 주소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입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후에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 3:16 _____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죽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눅 23:43). 그런데도 남들이 여러분의 무덤을 어디에 세워줄지 왜 걱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된 나라로 가게 됩니다.

※ 천국이 어떻게 자유롭게 나누어 보십시오.

요 14:1~3 _____

※ 빌립보서 1:21~23, 고린도후서 5:4~8 말씀이 전하는 핵심을 정리해 본 뒤,
나누어 보십시오.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후 그에게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우고 즐겼던 모든 것들을 통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골 1:19~20 _____

요 14:6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③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사무엘하 22장

찬송가 428장

목/상/노/트

모든 환난과 원수들의 음모에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과 그 집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졌는지를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반석이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1~7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원수들과 싸우시는 승리의 용사이십니다(8~16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무조건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행하는 분이십니다(17~28절).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며(29~46절),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47~51절).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29절)라고 고백합니다. 등불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흑암에 있는 자신을 알기에 흑암에서 건져 주실 여호와를 등불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의 빛’, ‘나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흑암에 있는 자기 실상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하는 것이라면 다만 그럴듯한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흑암, 어둠으로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리스도를 ‘빛’으로 일컫지만 그 빛은 어려운 처지에 빠진 자신을 건져주는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본 것이며, 잘못된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신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자신은 보지 않은 채 예수를 말한다면 그 예수는 결국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 온유함(36절) : 히브리어의 의미상 ‘응답’ 또는 ‘도움’이라는 뜻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삼하 22:29)

You are my lamp, O LORD; the LORD turns my darkness into light. (2 Sam. 22:29)

기도제목

① 빛 되신 주님을 믿되 나의 상황을 비취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믿게 하소서. ② 출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영원한 언약

14

앞 장의 노래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지어진 것이라면 이 장은 말년에 그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은 노래와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1~7절).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흥에 대한 소망이지만, 장차 있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도 함께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 왕국을 건설하고 발전시킨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은 요세밧세벳과 엘르아살, 삼마로서 블레셋을 격파한 일등 공신들이었습니다(8~21절). 그 외에도 다윗은 희생적으로 다윗을 섬긴 아비새, 브나야와 또 한 명의 용사(22~23절)와 30인의 용사를 회고합니다(24~39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1절)는 구절로 시작되는 3장은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영원한 언약을 보지 못하고 죽는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먼저이고, 주님은 나중에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길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 시랴삼하 23:5)

“Is not my house right with God? Has he not made with me an everlasting covenant, arranged and secured in every part? Will he not bring to fruition my salvation and grant me my every desire?”(2 Sam. 23:5)

사무엘하 23장

찬송가 430장

목/창/노/트

·곡식 벨 때(13절) : 팔레스타인 지방은 겨울이 강우이고 여름이 건조기이다. 따라서 추수기는 강우기가 끝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7주간 계속된다.

기도제목

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

사무엘하 24장
찬송가 532장

목/상/노/트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윗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1~9절).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이 여호와 앞에서 죄임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국에 3일 동안 온역이 임하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10~17절).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곧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18~25절).

1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범하게 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21:1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허용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을 번제와 화목제로 끌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25절). 즉 우리를 번제와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여가기 위해 우리의 범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용서의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삼하 24:1)

Again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and he incited David against them, saying, “Go and take a census of Israel and Judah.” (2 Sam. 24:1)

•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15절) :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죄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2012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4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디도의 해야 할 사역

16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어 신자들의 모임을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당시 그레데의 교회는 행정적으로 조직화 되지 못했고, 교회 안에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적고 있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디도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확인하면서 믿음을 따라 참아들 된 디도에게 쓰는 편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한 이후에 바로 자신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자세히 밝힙니다. 이 일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규정한 뒤 보다 구체적으로 할례파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디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드러내었으며, 여전히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배만을 위한 게으른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디도는 진실로 거룩한 장로들을 세워야 했으며 그들을 꾸짖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모습을 버리고, 복종하지 않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함으로 거짓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 1:16)

They claim to know God, but by their actions they deny him. They are detestable, disobedient and unfit for doing anything good. (Tit. 1:16)

디도서 1장

찬송가 288장

목/상/노/트

• **가증한(16절)** : 혐오스러운, 몹시 미움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본질의 의미에는 몹시 미워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믿음이 진실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디도서 2장
찬송가 452장

목/상/노/트

디도를 향한 바울의 지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디도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바른 교훈을 말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의 거룩과 모함하지 않음과 선한 것을 가르침을, 젊은 여자에게는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신중과 순전과 집안 일을 할 것과 선행과 남편에게 복종함을,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함과 선한 일의 본됨과 단정함을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할 것과 신실할 것을 말합니다. 이상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의 내용들을 언급한 후에 바울은 이같은 삶의 모습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말하며, 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거룩한 삶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공통으로 밝히고 있는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같은 삶의 본질은 이 땅에 속한 정욕과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받은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며, 가르치는 자와 영적인 지도자는 이 부분을 항상 권면해야 합니다. 진실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도 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4)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all wickedness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that are his very own, eager to do what is good. (Tit. 2:14)

• 신중하며(5절) : '신중'은 건전한 마음의, 혹은 절제하는이라는 원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어로는 소프론이라는 말로, 소스안정한, 좋은과 프랜(마음, 정신에서 유래했다. 이 형용사는 신약성경에서 목회자 신에만 4회(가령 나옴과 절제나 자제하는, 즉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신중함을 나타낸다.

기도제목

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

18

선한 일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대한 복종을 말하고, 다른 이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이처럼 다른 이에게 관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전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악한 자였기 때문이며, 바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디도에게 말한 바울 사도는 그에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면의 내용을 마친 바울은 이제 언제 돌아와서 만날 것과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탁하면서 문안 인사를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방하고 다투는 자가 아닙니다.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이 나타나야 하는 자입니다. 이는 어떤 도덕적인 수련의 결과가 아니며, 내가 철저히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리석은 자였을 때에, 순종하지 않은 자였을 때에, 마귀에게 속은 자로 있을 때에,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하였을 때에,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있을 때에, 가증스러운 자였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였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결코 남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의 삶의 모든 근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Tit. 3:5)

디도서 3장

찬송가 595장

목/창/노/트

• 중생(5절) : '팔랑계네시야'('다시'라는 말과 '기원'이나 '출생'의 복합어이다)라는 원어로 새롭게 됨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살라 (마가복음 4:24)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요일 4:1~3).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만큼 배부르고 건강해 지며(눅 8:17~18), 듣는 자에게는 듣는 만큼 더 주신다.

1.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듣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진리의 말씀은 경청하여 들어야 한다(골 2:8~9).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들어야 한다(막 4:11~14). 말씀이 내려질 때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고전 1:18~21). 말씀을 기대하고 갈급함으로 들을 수 있다면 복된 삶이다.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할 수 있다(롬 10:16).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2.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자신이 계산한 만큼만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롬 1:22~23, 25).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교회에 나와도 복음보다는 교회 안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일이 기쁨이 되는 자들이 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한다(마 11:25~27).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복음을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 배불리 먹게 해 주신다(마 5:6).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목마른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집과 의복이 되고, 양식이 되며 천상의 천국이 되신다(골 1:16,18~20). 복음은 영혼의 갈급함으로 듣기 원할 때 들을 수가 있다.

3. 또 더 받으리라

복음 듣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듣기 원하는 마음을 더 주신다(엡 3:14~19 ; 벧후 3:15~16). 복음은 들을 수록 진리를 더 확실하게 된대(롬 1:16~17).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안에 살 때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엡 3:17~19), **충만한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더'(more)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복음만이 참 지혜와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다(골 1:13~17).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골 2:2~3 ; 롬 10:17).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복음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듣도록 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자주 가서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바란다! 아멘.

빈 무덤

마태복음 28:1~10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다

창세기 5:24

새 일들

요한복음 1:43~51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예레미야 31:1~4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9 주일

20 월요일

☐ 빌레몬서 1장

21 화요일

☐ 히브리서 1장

22 수요일

☐ 히브리서 2장

23 목요일

☐ 히브리서 3장

24 금요일

☐ 히브리서 4장

25 토요일

☐ 히브리서 5장

3

새 일들

New Things

| 초점 |

예수님은 새 일들을 행하신다

| 찬송 |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본문 | 요한복음 1:43~51

⁽⁴³⁾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⁴⁴⁾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⁴⁵⁾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⁴⁶⁾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⁴⁷⁾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⁴⁸⁾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⁴⁹⁾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⁵⁰⁾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⁵¹⁾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어부가 아니라, 학구적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방금 막 받아들였던 친구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나다나엘과 빌립이 누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나다나엘 _____

- 빌 립 _____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계셨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준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은 찾아다니는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구세주이십니다.

요 1:43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씨 뿌리는 자와 같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와 같으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마 13:3

눅 15:4

눅 15:20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치료사나 성공의 해답, 혹은 동기부여의 달인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시는 특징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찾아다니는 구원받은 자이다

빌립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요 1:45

빌립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잃은 자들에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복음전도는 구원이 진짜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자기만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밖으로 나가서 그 삶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 4:19

행 2:46~47

빌립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다니엘에게 소개한 것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간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형편없는 본보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지함에도 영혼들을 찾으시는 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했거나 복음을 전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나다나엘은 구원받은 죄인이다

나다나엘은 구원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요 1:46~49 / 나다나엘이 이르되 _____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_____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_____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새 일입니까! 앞으로 나다나엘에게는 위대한 새 일들이 일어날 것이었으며, 우리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요 1:12 _____

고후 5:17 _____

※ 예수님의 제자로 칭함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일들을 행하셨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을 보며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은 주님이 이루실 새 일들을 보며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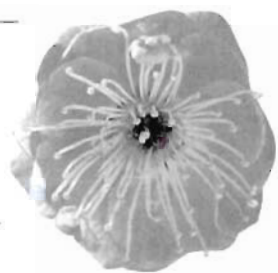
사 43:19~20

계 21:1

| 믿음의 기도 |

- ① 새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함

빌레몬서 1장
찬송가 221장

목/상/노/트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어느 집에 연금되어 있을 때에 기록된 서신서로 기록 대상은 빌레몬, 압비아, 아킴보, 그리고 골로새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주인 집에서 도망하여 로마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고 변화된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법에 따르면 주인에게서 도망하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 가지고 도망한 종의 죄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밝히며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 주고 그가 불의한 것이나, 빚진 것은 모두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의 권면과 부탁에 응해줄 것을 확신하면서 인사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권면은 자기부인과 희생입니다. 빌레몬에게 요구되는 자기부인과 희생은 주인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으며,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이익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요구되는 자기부인과 희생 역시 진짜여야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많은 잘못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외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요구하시는 자기부인이 무엇입니까? 희생이 무엇입니까?

• 심복(12절) : '스물삼코노' 이라는 말로 심장, 마음, 사랑을 말한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빌레몬은 자신의 심장, 곧 자신이 극진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인 것이다.

간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몬 1:10)

I appeal to you for my son Onesimus, who became my son while I was in chains. (Phlm. 1:10)

기도제목

①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아들

21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히브리서의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데, 그 이유를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 2:7과 삼하 7:14을 근거로 어떤 천사에게도 그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 97:7과 시 104:4, 그리고 시 45:6을 통하여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시 102:26~27을 통하여 주는 영존할 것이며, 한결같으시고 연대가 무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 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같은 모습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실로 꺾어놓은 배처럼 유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임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2)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whom he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and through whom he made the universe. (Heb. 1:2)

히브리서 1장
찬송가 294장

목/상/노/트

• 발동생(13절) : '히포르디온'이라는 이 표현은 발판울 의미한다. 곧 발을 올려놓는 대를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꺾대로 삼게 하여 주소서. ② 사순절기(2.22~3.31)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22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찬송가 400장

목/상/노/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결코 그 보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사람의 아들, 곧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된 우리 믿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이 죽음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철저하게 죄인 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며, 진실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죽음까지도 친히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죄의 종, 곧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성도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겪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 2:18)
Because he himself suffered when he was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Heb. 2:18)

• 등한히(3절) : '아멜레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보살피다라는 말의 부정적인 표현이다. 이는 곧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주의한 것,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소서. ② 진심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재의 수요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23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를 향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복음이 되시며,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임을 말합니다. 곧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믿음의 내용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또한 그들의 삶의 형편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며 믿음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또한 주위에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도 함께 권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서 완고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심령을 어린 아이와 같이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Therefore, holy brothers, who share in the heavenly calling, fix your thoughts on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whom we confess. (Heb. 3:1)

히브리서 3장
찬송가 357장

묵/상/노/트

· **중첩(重疊)** : '도키마시야'의 번역어로 입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곧 증거를 제시함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 이 절에서만 나오며 시험하여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오직 믿음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소서. ② 2012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4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안식에 들어갈 자

히브리서 4장

찬송가 43장

묵/상/노/트

• **보좌(보좌)** : 보좌로 번역된 '드로노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왕좌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자리 및 발판과 관계가 있으며, 등받이와 팔걸이와 발판을 갖추고 있는 높은 의자를 뜻한다. 이것은 장로들, 교사들이 앉는 자리이며, 나중에 왕이나 신들의 자리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것을 말했던 저자는 이제 “두려워할지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할 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다윗의 글에 예언된 것처럼 다시금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만물이 별것없는 것 같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참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또 다른 안식의 날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닌,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 4:12)

기도제목

기도노트

- 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회개케 하여 주소서.
- ② 제1차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청지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달으며 참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25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밝힌 저자는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구약의 대제사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구약의 인간 대제사는 자기 자신도 연약하기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올려야 했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마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2:7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시 110:4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하여 초보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될 것이며, 삶의 여러 형편을 넘어서서 장성한 자로서 다른 이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 5:14)

But solid food is for the mature, who by constant use have trained themselves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Heb. 5:14)

히브리서 5장

찬송가 90장

묵/상/노/트

• 반차(6장) : ‘탁시즈’라는 용어로 질서나 방식을 의미한다. 곧 배열함, 정돈함, 배열, 정렬, 순서, 합당한 순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기도제목

- ①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주 예수님만이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받은 책자에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주제 말씀이 써 있었다. 제목부터 하나님은 죄인 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다. 주제 말씀 가운데 비춰진 내 모습을 생각하니 청지기훈련 때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더 갈급한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 안에서 인간들이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했다. 죄를 짓고 타락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은 회복된 영혼을 찾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아무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죄인인 강도, 그 강도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아! 주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항상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재가 되지 못하였구나.' 매번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여전히 그대로인 내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내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골 2:2~3).

변함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능성 없어 보이는 나에게 오늘도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만족함이 되길 소망한다. '주여! 이 죄인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진경(청년1독)

빈 두툼

마태복음 28:1~10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다
창세기 5:24

새 일을

요한복음 1:43~51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예레미야 31:1~4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6 주일

27 월요일

☐ 히브리어 6장

28 화요일

☐ 히브리어 7장

29 수요일

☐ 히브리어 8장

1 목요일

☐ 히브리어 9장

2 금요일

☐ 히브리어 10장

3 토요일

☐ 히브리어 11장

4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Do Not Contradict God

| 초점 |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 본문 | 예레미야 31:1~4

①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②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리 갈 때에라

③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④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녀들은 종종 어떤 문제들을 놓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반대하는데, 이는 어느 가정에서나 흔한 일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거역은 부모를 향한 반항이며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너무나 자주 신자들은 하늘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잠 19:3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진리에 대적하는 반항입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 4:7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렘 31:3 _____

요 3:16 _____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열정적인 기적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누가복음 2:11~12, 요한복음 11:42~44, 이사야 53:5,12 말씀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보여졌으며, 그 사랑은 그분의 구속 계획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

불평하거나 화를 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출 14:11~12 _____

출 14:14 _____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워싸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시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는 갈라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피해 없이 홍해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막 4:38~39 _____

눅 1:37 _____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에 어떤 역경이라도 찾아오면 쉽게 원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고전 10:13 / 사람이 _____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_____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정도로만 제한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시험받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딤후 2:13 /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_____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에 있어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지만, 정작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롬 11:20 _____

약 4:6 _____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절대로 자신의 경험, 감정이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을 멈추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일 5:4 _____

갈 3:22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 ②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히브리서 6장
찬송가 484장

목/상/노/트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성장과 진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회개하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욕되게 한 것이라 말하며 이들의 마지막이 불사름으로 끝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격려합니다. 믿음의 선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과 인내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믿음의 소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내라는 단어가 뒤따라옵니다. 당장의 편안함과 당장의 쾌락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소망은 현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현재라는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을 던져버리면 오늘 현실의 내 삶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붙잡고 걸었던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줬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도(1절) : 여기에서 사용되는 도라는 표현은 '로고스'이다. 곧 그리스도의 도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로고스라는 의미로 이는 말씀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히 6:19)

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firm and secure. It enters the inner sanctuary behind the curtain.(Heb. 6:19)

기도제목

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멜기세덱

28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십일조를 취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습니다.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하였다면 왜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을 세웠겠습니까? 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완전하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한 제사장의 의미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대제사장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민족적 구원에 대한 신념까지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앞에서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전혀 깊이 생각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의, 온전히 죄 된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든 축복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Therefore he is able to save completely those who come to God through him, because he always lives to intercede for them. (Heb. 7:25)

히브리서 7장

찬송가 88장

목/상/노/트

• 갈라디(24절) : 갈린다라는 이 표현은 '아파라바토스'라는 용어로서 병할 수 없음,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오늘 내 삶에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새 언약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8장
찬송가 508장

목/창/노/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땅의 임시적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참 성전에 계시면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둘째 언약이 요구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두고 진실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옛 언약을 붙잡고자 합니다. 옛 언약에는 내가 높아지는 길이 있고,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내가 불완전하듯 너무도 불완전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므로 온전한 언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 언약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8:12)
"For I will forgive their wickedness and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Heb. 8:12)

• **참고(5절)**: 헬라어에서 '보라'라는 의미의 용어이다. 곧 보더라는 의미에서 고려하고, 주의하라, 혹은 주목하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기도제목

① 내가 높아지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새 언약을 붙잡게 하소서. ② 2012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2년 2월

Copyright©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